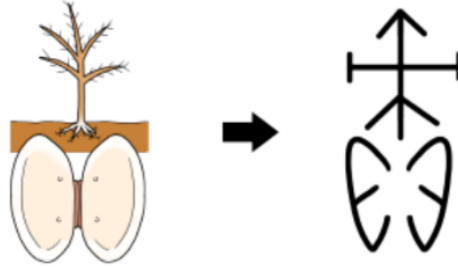


5(2)
-
91

회의문자 ①



責

꾸짖을
책

責자는 '꾸짖다'나 '빚'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責자는 '꾸짖다'라고 할 때는 '책'이라 하고 '빚'을 뜻할 때는 '채'로 발음한다. 責자는 貝(조개 패)자와 束(가시 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束자는 '가시나무'를 그린 것으로 '가시'나 '동여매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責자는 이렇게 가시를 뜻하는 束자에 貝자를 결합해 '가시가 돋친 돈'이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이다. 남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재촉당하기 일쑤다. 그래서 責자는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면 책망을 당한다는 의미에서 '꾸짖다'나 '나무라다'를 뜻하게 되었다.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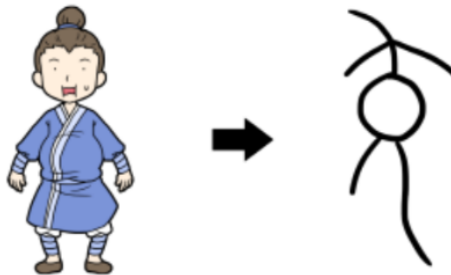
금문

소전

해서


5(2)
-
92

회의문자 ①



充

채울 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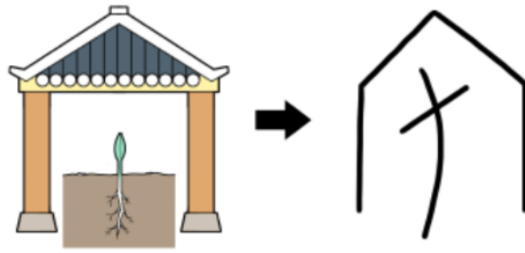
充자는 '채우다'나 '가득 차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充자는 배가 불룩한 사람을 그린 것이다. 소전에 나온 充자를 보면 배가 불룩한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이 아이를 뱐 것인지 아니면 식사 후의 포만감을 뜻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充자는 불룩한 사람의 배가 강조해 그린 것으로 '가득 차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소전

해서

5(2)
-
93

회의문자 ①



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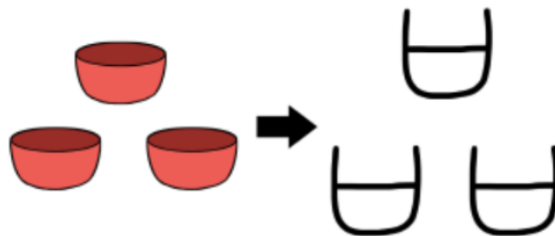
宅자는 '집'이나 '살다', '주거', '자리 잡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宅자는 宀(집 면)자와 乇(부탁하다 탁)자가 결합한 모이다. 乇자는 땅속에 뿌리를 내린 초목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갑골문에 나온 宅자를 보면 마치 집안에 초목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듯한 宀 모습이었다. 이것은 내가 살아갈 터전에 자리를 잡았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宅자는 그런 의미에서 '집'이나 '자리 잡다'나 '주거'를 뜻하게 되었다.

집 택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5(2)
-
94

회의문자 ①



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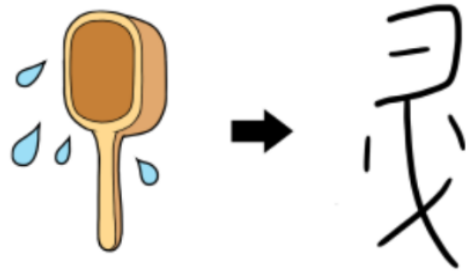
品자는 '물건'이나 '등급', '품격'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品자는 3개의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品자는 여러 개의 그릇이 함께 놓여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品자는 본래 그릇이 가지런히 '잘 놓여있다'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品자에 아직도 '온갖'이나 '가지런하다'라는 뜻이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후에 品자가 그릇 자체나 '물건의 종류'를 뜻하게 되면서 지금은 제품의 '등급'이나 '품격'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물건 품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상형문자 ①

5(2)
-
95



必

반드시
필

必자는 '반드시'나 '틀림없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必자는 心(마음 심)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심장'이나 '마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必자는 물을 퍼 담는 바가지를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갑골문에 나온 必자를 보면 바가지 주위로 물이 튈 𣵿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래서 必자는 바가지나 두레박을 뜻했었다. 하지만 후에 '반드시'나 '틀림없이'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木(나무 목)자를 더한 秘(자루 비)자가 뜻을 대신하고 있다. 참고로 必자는 心자에서 유래한 글자가 아니므로 글자를 쓰는 획의 순서도 다르다.

𣵿

갑골문

𣵿

금문

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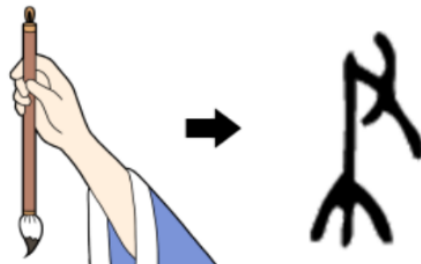
소전

必

해서

회의문자 ①

5(2)
-
96



筆

붓 필

筆자는 '붓'이나 '글씨', '필기구'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筆자는 竹(대나무 죽)자와 聿(붓 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聿자는 손에 붓을 쥐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붓'이라는 뜻은 聿자가 먼저 쓰였었다. 하지만 소전에서는 붓의 재질을 뜻하기 위해 竹자를 더해지면서 지금의 筆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𣵿

갑골문

𣵿

금문

筆

소전

筆

해서

5(2)
-
97

회의문자 ㉠



害

해할 해:

害자는 '해치다'나 '해롭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害자는 宀(집 면)자와 丰(예뻐 붕)자,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丰자는 풀이 무성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흥기를 그린 모양자로 응용되었다. 害자는 집안에 어지러운 말다툼이 일어나고 있음을 뜻하는 글자로 본래의 의미는 '상해를 입히다'이다. 그래서 害자는 누군가를 해치거나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금문

소전

해서

5(2)
-
98

회의문자 ㉠



化

될 화

化자는 '되다'나 '변천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化자는 人(사람 인)자와 匕(비수 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化자의 갑골문을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엇갈려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산사람과 죽은 사람을 함께 그린 것이다. 化자는 본래 윤회(輪廻)를 표현한 것으로 人자는 '산 사람'을 匕자는 '죽은 사람'을 뜻한다. 化자에 '죽다'나 '태어나다'의 뜻이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化자는 '변천하다'나 '바뀌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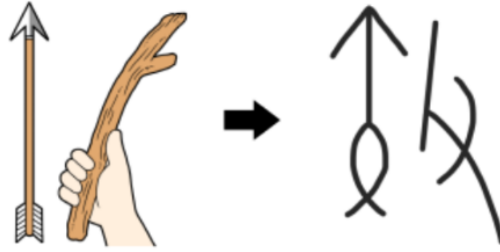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 ㉠

5(2)
-
99



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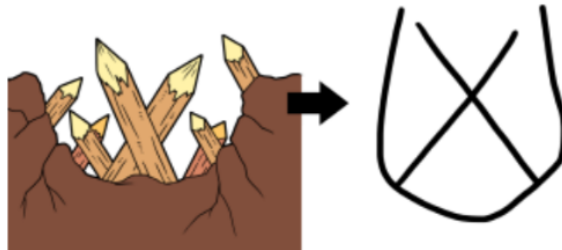
본받을
효

效자는 '본받다'나 '배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效자는 交(사귄 교)자와 攴(칠 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갑골문에서는 交자가 아닌 矢(화살 시)자가 攴 쓰였었다. 이것은 화살촉을 다듬어 똑같이 만든다는 뜻이다. 그래서 效자의 본래 의미는 '본뜨다'였다. 그러나 금문에서부터는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攴 모습의 交자가 쓰이면서 사람을 훈육하기 위해 회초리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의 效자는 훈육을 통해 어떠한 대상을 본받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본받다'나 '배우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후에 배움의 효과를 의미하는 '나타나다'나 '드러내다'라는 뜻도 파생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상형문자 ㉠

5(2)
-
100



凶

흉할 흉

凶자는 '흉하다'나 '흉악하다', '운수가 나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凶자는 凵(입 벌릴 감)자와 乂(다섯 오)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凶자는 짐승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든 함정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凵자는 구덩이를 그린 것이고 乂자는 구덩이에 이미 무언가가 빠졌음을 표현한 것이다. 凶자는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나 짐승이 흉한 일을 당했다는 의미에서 '흉하다'나 '운수가 나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갑골문	소전	해서